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Library Anxiet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Gwangju

장예솔 (Ye-Sol Jang)**

김지현 (Ji-Hyun Kim)***

초 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5곳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도서관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7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91점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횟수, 도서관거리, 그리고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icul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use of library with LAS (Library Anxiety Scale). The data were collected by LAS survey with 137 married immigrant women in five public libraries in Gwangju from December 2015 to March 2016. As the results, married immigrant women's average anxiety score was 2.91 points which is comparatively higher tha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library anxiety scores with personal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several factors such as Korean skill, spouse's job, purpose of using library, visiting count of library, distance between home and library, and experience from their homel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to reduce married immigrant women's anxiety from library.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도서관 불안, 공공도서관, 도서관 이용
married immigrant women, library anxiety, public library, use of library

* 본 연구는 2016년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광주 사적도서관 사서(kacedealer@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ihkim@j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8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9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11일

■ 정보관리학회지, 33(3), 195-217,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3.195]

1. 서론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9,7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고령화와 청·장년층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이상노, 2014),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혼인관계에 있으며,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들이 살아왔던 문화와는 다른 한국문화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소외, 경제적 어려움, 사회참여의 상대적 어려움,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이선, 2010).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로의 동화와 문화적 통합을 강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

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들을 서서히 한국 문화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들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과 이해의 역할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이란주, 2002).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장소, 그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은 활발하지 못하며 그들의 정보요구를 도서관이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에 공공도서관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시대의 도서관 역할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시민

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란주, 2002). 또한 2002년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을 교육기관, 지역 정보센터, 창조적 기관,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등 4가지로 정리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차별 없이 모두의 평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정보 추구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그들의 지적 수준과 정보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등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장우권, 박성우, 여진원, 2014, p. 347). 오늘날 우리는 점점 지식정보가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장우권 외, 2014). 정보는 경쟁력이며, 개인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존재해야 하며 누구든지 정보접근의 기회 앞에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문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일찍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외국 도서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김영미, 조인숙, 2009;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노지현, 2012; 양수연, 차미경, 2011; 오해연, 김기영, 2014; 이연옥, 장덕현, 2013; 이혜원, 2015; 조용완, 이수상, 2011)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인,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이용 문제점을 포함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도서관 불안

Mellon(1986)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불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도서관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Mellon은 6,000명의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느낌을 일기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학생 중 75~85% 사이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불안,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해매는 느낌, 혼동, 무기력 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Kuhlthau(1983)는 도서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탐색과정에서 그들의 시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로인해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데 장애를 경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연구에서도 Kuhlthau(1988)는 정보행위의 6단계 중에서 학생들이 불안, 혼동, 불확실성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Jiao, Onwuegbuzie, Lichtenstein(1996, p. 152)은 도서관 불안이란 "도서관 환경에서 경험된 불안정한 느낌, 정서적 성향을 말하는데, 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생리학적 행동결과"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외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는 두 가지

경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LAS(Library Anxiety Scale)의 개선 및 새로운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도서관 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먼저 척도의 개발을 살펴보면 1986년 Mellon의 도서관 불안 이론이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이론에 착안하여 Bostick은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편안함, 도서관지식, 기계에 의한 장벽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도서관 불안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도서관 불안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불안 이론의 과학적 증명을 위하여 Bostick(1992)은 5개 범주에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로 도서관 불안 척도를 개발하여 도서관 불안을 정량화하였다. 국내연구로 남태우와 박현영(2006)은 도서관 불안이 다양한 개인적 기질이나 상황,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척도와 논거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후기 및 설문지를 분석하여 한국형 도서관 불안 척도(K-LAS/6요소 40문항)를 개발하였다. 권나현(2004)은 Bostick의 도서관 불안척도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의 등장 및 도서관 원격서비스의 확대라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구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주범(2010)은 이용자가 디지털도서관 이용 시 경험하는 불안을 정의하여 개념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DLAS)를 개발하여 기본적 요인들을 예측하였다.

도서관 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로는 Jiao, Onwuegbuzie, Lichtenstein(1996)은 Bostick의 LAS를 사용하여 49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여 도서관 불안을 예측하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8가지의 요인들(나이, 성별, 학년, 모국어, 학점, 직업,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 이용 이유)을 밝혔다. Onwuegbuzie(1997)은 도서관 불안에는 직원불안, 인지된 도서관지식, 위치불안, 인지된 도서관의 안락함, 기계적 불안, 자원불안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 김홍렬(2010)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감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도서관 방문목적과 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활용하고 도서관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2010)은 장애인들의 도서관 불안감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도서관 방문목적, 방문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보 활용교육과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개방적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선혜와 이성숙(2012)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국형 도서관 불안 척도를 이용하여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였으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도서관 불안 점수가 높으며, '디지털정보'요소의 불안 점수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오의경(2012)은 도서관 불안 해소를 응답자의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과 도서관 불안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개인성향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도서관 불안 해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안하였다. 정종기(2014)는 대학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이전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노출 경험이 입학한 후 대학도서관 불안지수 감소와의 관계특성을 조사하여 도서관 지식, 사서와 사서교사의 배치, 도서관 이용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위한 공간만이 아닌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한 주제에 같은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도서관 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느끼는 불안감을 밝히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에 대한 조사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용자층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여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불안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도서관대출 및 반납, 문화강좌 참여 등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어 및 문화강좌 강사들과 사서들의 도움으로 인터뷰형식으로 한 문항씩 질문하며 조

사를 진행하였다. 성실한 답변을 제공한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모두 151명으로,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4건을 제외하고 137건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네 달간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중예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나 문헌을 비치한 5곳에서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존의 도서관 불안 척도들(남태우, 박현영, 2006; Bostick, 1992; Van Kampen, 2002)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도서관 관중이 다른 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하지 않은 요소 및 문항의 용어들이 사용되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항목의 적절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10명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pre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들에 대한 통계적 검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도서관 이용행태, 그리고 도서관 불안 측정 항목 등 총 40개의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한국 체류기간,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직업, 가정의 월 소득, 이용 목적,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과 집까지의 거리,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의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 간 불안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의 통계적 해석을 위해 유의

도 수준을 9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분석에 앞서 먼저 설문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Cronbach 알파를 사용한 신뢰도 검사 결과, 주요 항목들의 Cronbach 알파값이 0.8~0.9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 도서관 불안에 대한 알파값은 0.890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Cronbach 알파값이 보통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문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표 1>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1: 심리적·정서적 장벽	길 혼란	.777	.125	.152	.030	.141
	이용 당황	.770	.166	.150	.023	.046
	자원이용 모름	.692	.205	.112	.117	.265
	책 부재 혼란	.681	.209	.151	-.015	.132
	정보조사 모름	.672	.062	.079	.195	.163
	사서 귀찮게함	.569	.233	.100	.024	.066
	자료 무지	.549	.377	.258	-.046	.106
	공간 당황	.482	.083	.039	.079	.306
	이용 불편	.412	.243	.112	-.027	-.067
요인2: 직원으로 인한 장벽	장비 도움	.248	.689	.248	.034	.014
	직원 불친절	.154	.672	.087	.206	.263
	사서 도움	.377	.627	.234	.300	-.046
	규칙 엄격	.199	.615	.205	.054	.151
	사서 시간없음	.234	.517	.039	.300	.046
요인3: 물리적·환경적 장벽	안전문제	.002	-.098	.796	.024	.041
	자료 없음	.160	.270	.760	.089	-.038
	도서관 편안	.308	.151	.764	.341	-.123
	도서관 범죄	-.023	-.071	.720	.167	-.154
	데스크 도움	.308	.151	.594	.341	.123
요인4: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컴 교육 문제	.280	.221	.453	.373	-.151
	프린터 어려움	-.011	.073	.155	.816	.164
	복사기 어려움	-.007	.142	.078	.805	.086
요인5: 디지털 정보 이용의 장벽	동전교환 고장	.201	.218	-.036	.777	-.045
	컴 이용 편리	.299	.238	.152	.342	.678
	웹 이용 편리	.124	.011	.078	.180	.669
	목록이용 편리	.094	.132	.020	-.037	.661
	컴 이용 교육	.260	.176	.075	.382	.504
	집 이용 편리	.385	.318	-.079	.109	.485
고유값		4.359	4.005	2.866	2.769	2.319
분산(%)		15.020	13.811	9.882	9.525	7.996
누적(%)		15.020	28.832	38.714	48.238	56.234
Cronbach's α		0.866	0.817	0.823	0.900	0.843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문항들이 연구 설계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6.23%가 설명되고 있으며,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심리적·정서적 장벽, 두 번째 요인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세 번째 요인은 물리적·환경적 장벽, 네 번째 요인은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다섯 번째 요인은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도서관 불안 측정 29개 문항은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 분석

설문조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한 조사에서 연령대별 분포는 30대(40.9%)와 20대(31.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고졸 43명(31.4%), 중졸이 42명(30.7%)으로 비슷한 수치이며, 대졸은 26명(19.0%), 초졸 역시 26명(19.0%)이었다. 한국 체류기간에는 3년 이상이 73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 30명(21.9%)으로 설문지에 참여한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을 분석해 본 결과, 무직(주부)이 57명(41.6%)으로 가장 높았고 공장 37명(27.0%), 어학강사 20명(14.6%), 식당 9명

(6.6%), 기타 8명(5.8%), 자영업 6명(4.4%) 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직업 분포는 어학강사 35명(25.5%), 농업·임업·어업 26명(19.0%), 공장이 25명(18.2%), 자영업 22명(16.1%), 무직 17명(12.4%), 기타 12명(8.8%)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공공도서관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이용목적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강좌 참여가 44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목도모 및 기타 27명(19.7%), 개인학습 26명(19.0%), 도서대출·반납이 24명(17.5%), 독서 및 신문열람 10명(7.3%), 정보검색 6명(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행태에 관련한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방문횟수는 한 달에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전체 55.5%를 차지하고 있다. 집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전체 75.2%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성의 비율에 비해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 중 모국의 도서관을 이용해 보지 않았거나(41.6%), 자주 이용하지 않는(20.4%) 비율이 높은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용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2 도서관 불안 점수 분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의 전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불안 척도의 5개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대상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된 결혼이주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43	31.4
	30대	56	40.9
	40대	31	22.6
	50대 이상	7	5.1
	합계	137	100.0
학력	초졸이하	26	19.0
	중졸	42	30.7
	고졸	43	31.3
	대졸	26	19.0
	합계	137	100.0
한국어능력	상	33	24.1
	중	79	57.7
	하	25	18.2
	합계	137	100.0
한국 체류기간	1년 미만	5	3.6
	1년 이상~2년 미만	29	21.2
	2년 이상~3년 미만	30	21.9
	3년 이상	73	53.3
	합계	137	100.0
직업	무직	57	41.6
	어학강사	20	14.6
	공장	37	27.0
	식당	9	6.6
	자영업	6	4.4
	기타	8	5.8
	합계	137	100.0
배우자 직업	무직	17	12.4
	어학강사	35	25.5
	공장	25	18.2
	농업임업어업	26	19.0
	자영업	22	16.1
	기타	12	8.8
	합계	137	100.0
가정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	3.6%
	150만원 미만	48	35.0%
	200만원 미만	37	27.0%
	200만원 이상	47	34.4%
	합계	137	100.0%

〈표 3〉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행태 특성과 분포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대출·반납	24	17.5
	개인학습	26	19.0
	독서 및 신문열람	10	7.3
	문화강좌 참여	44	32.1
	정보검색	6	4.4
	친목도모 및 기타	27	19.7
	합계	137	100.0
도서관 방문횟수	매일	7	5.1
	1주일에 1회 이상	30	21.9
	한 달에 1회 이상	39	28.5
	6개월에 1회 이상	21	15.3
	일 년에 1회	40	29.2
	합계	137	100.0
집과 도서관의 거리	도보30분 이내	34	24.8
	버스로 30분 이내	47	34.3
	버스 30분 이상 1시간 이내	46	33.6
	버스 1시간 이상	10	7.3
	합계	137	100.0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	매일	4	2.9
	1주일에 1회 이상	12	8.8
	한 달에 1회 이상	22	16.1
	6개월에 1회 이상	14	10.2
	1년에 1회	28	20.4
	없다	57	41.6
	합계	137	100.0

〈표 4〉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점수

하위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표준편차
심리적·정서적 장벽	137	1.00	4.11	3.10	0.67
직원으로 인한 장벽	137	1.00	4.50	2.85	0.69
물리적·환경적 장벽	137	1.00	4.33	2.57	0.57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137	0.00	5.00	2.49	1.04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137	1.60	4.60	3.20	0.72
도서관 불안	137	1.24	4.21	2.91	0.51

여성의 도서관 불안 전체의 평균점수는 2.91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김홍렬(2008)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 2.57점, 오선혜와 이성숙(2012)의 연구에서 산출된 시니어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2.95점, 장

보성(2010)의 장애인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3.15점으로 광주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은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보다는 낮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 보다는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5개 영역별 도서관 불안 점수를 비교해보면,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요소에서의 도서관 불안 점수가 평균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정서적 장벽' 요소 3.10점, '직원으로 인한 장벽' 요소 2.85점, '물리적·환경적 장벽' 요소가 평균 2.57점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요소가 평균 2.49점 순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점수를 기존연구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도서관 불안 중 가장 높은 점수인 '물리적·환경적' 요소의 점수가 3.34점이며,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중 '기계적 장벽' 점수인 2.70점인 것에 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물리적·환경적' 요소와 '기계적 장벽'의 점수는 각각 2.57점과 2.49점으로 도서관 불안 요소 중 가장 낮은 영역인 것으로 측정된 점이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3.20점)' 요소는 온라인 목록 검색과 홈페이지 이용 등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많은 좌절감과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시니어,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모두 디지털정보에 대한 불안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는 대학생들에 비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다소 취약한 계층이며 컴퓨터나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이용에 있어

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다음으로 높은 불안 점수인 '심리적·정서적 장벽(3.10점)' 요소도 눈여겨 볼 만하다. 심리적 요소는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도서관에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원에 의한 장벽(2.85점)' 요소의 불안점수가 높은 이유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인 도서관 직원에 대한 이미지가 바쁘고 낯선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사소통에 한계가 오고 그로인해 질문을 기피하게 되므로 직원에 대한 친근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물리적·환경적 장벽(2.57점)'과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2.49점)' 요소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도서관 건물이나 환경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위화감과 불편함을 주지는 않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기계고장에 관한 사항으로 복사기, 동전교환기, 프린터기 등의 기기는 대체로 잘 정비되고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4.3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혼이주여성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도서관 불안감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1개의 요인별로 전체 도서관 불안 변인에 대한 ANOVA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서관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한국어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횟수, 도서관까지 거리, 그리고 모국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이었다. 학력, 거주기간, 그리고 본인직업은 유의도 수준을 95%를 만족시켰지만 모집단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하였다.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집단별 차이가 검증된 요인들에 대한 5개영역(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물리적·환경적 장벽;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에 대한 도서관 불안감을 각각 분석하였다.

<표 5>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요인	df	F	유의확률
연령	4	1.185	.209
학력	3	10.755	.000
한국어능력	2	1.982*	.024
거주기간	3	3.362	.004
본인직업	5	3.255	.011
남편직업	5	5.841*	.000
월소득	3	1.741	.082
이용목적	5	9.574*	.000
방문횟수	5	3.682*	.006
도서관거리	3	6.595*	.000
모국경험	6	7.281*	.000

* 모집단 등분산 가정이 충족됨

4.4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도서관 불안 분석하였다. 한국어 전체 수준능력과 관련하여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심리적 장벽 요인에서만 한국어 능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이 '하'인 여성의 점수가 3.48점으로 불안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이 3.06점, '상'이 2.90점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한국어 능력에 따른 집단의 도서관 불안감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어 능력이 '하'인 이주여성 그룹이 다른 한국어 능력이 '상'이거나 '중'인 그룹들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더욱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여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 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표 6>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상	33	2.83	0.50	0.08	1.928	0.024
	중	79	2.86	0.52	0.06		
	하	25	3.16	0.39	0.07		
심리적·정서적 장벽	상	33	2.90	0.66	0.11	6.037	0.003
	중	79	3.06	0.68	0.08		
	하	25	3.48	0.46	0.09		

4.5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이주여성들의 배우자 직업에 따라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도서관 불안 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을 제외한 다른 4가지 영역(심리적 장벽, 직원의 장벽, 물리적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경우 도서관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장벽요소를 제외하고 남편의 직업이 농·임·어업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직업과 아주 비례하여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 직업이 농·임·어업과 공장, 무직인 경우와

어학강사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은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어학강사라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은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 대해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농·임·어업인 그룹과 어학강사 그룹이 다른 그룹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그룹은 물리적·환경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꼈고, 농·임·어업인 그룹은 심리적·정서적 요인, 직원으로 인한 요인, 그리고 디지털정보 이용의 요인에 의해 불안감을 다른 그룹들 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7>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무직	17	2.87	0.30	0.07	5.841	0.000
	어학강사	35	2.65	0.52	0.08		
	공장	25	3.01	0.53	0.10		
	농·임·어업	26	3.26	0.31	0.06		
	자영업	22	2.87	0.56	0.12		
	기타	12	2.85	0.49	0.14		
심리적·정서적 장벽	무직	17	2.95	0.48	0.12	4.961	0.000
	어학강사	35	2.86	0.63	0.11		
	공장	25	3.29	0.69	0.14		
	농·임·어업	26	3.55	0.41	0.08		
	자영업	22	2.95	0.78	0.17		
	기타	12	2.88	0.67	0.19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무직	17	2.95	0.61	0.15	3.328	0.007
	어학강사	35	2.52	0.79	0.13		
	공장	25	2.89	0.70	0.14		
	농·임·어업	26	3.21	0.48	0.09		
	자영업	22	2.86	0.64	0.14		
	기타	12	2.78	0.63	0.18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장벽	무직	17	2.74	0.51	0.12	2.482	0.035
	어학강사	35	2.33	0.63	0.11		
	공장	25	2.69	0.64	0.13		
	농·임·어업	26	2.71	0.33	0.06		
	자영업	22	2.44	0.50	0.11		
	기타	12	2.70	0.65	0.19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무직	17	2.92	0.76	0.13	5.188	0.000
	어학강사	35	2.93	0.73	0.15		
	공장	25	3.20	0.49	0.10		
	농·임·어업	26	3.72	0.77	0.17		
	자영업	22	3.33	0.53	0.15		
	기타	12	3.03	0.72	0.06		

4.6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이용목적과 관련하여 도서대출·반납, 개인학습, 독서 및 신문열람, 문화강좌 참여, 정보검색, 친목도모 및 기타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도서관 불안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를 보면 이용목적별로 문화강좌 참여 집단이 세 가지 요인들(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디지털 정보 이용 장벽)에서 가장 높은 불안점수가 나타났으며 정보검색 이용목적의 집단이 비교적 낮은 불안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용목적별 집단의 불안감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결과 전체 도서관 불안과 세 가지 요인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도서관 불안과 심리적·정서적 요인에서는 세 개의 이용목적 그룹별(친

목도모 및 문화강좌 목적 그룹; 정보검색 목적 그룹; 도서대출·반납, 개인학습, 독서 및 신문 열람의 목적 그룹)로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디지털정보 이용과 관련된 요인에서도 친목도모 및 문화강좌를 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보다 더 높은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직원 요인에 있어서만 검색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목적의 이주여성들보다 낮은 불안점수를 보였다.

4.7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이용 횟수에 관련하여 매일,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정도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세

〈표 8〉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대출·반납	24	2.69	0.52	0.10	9.572	0.000
	개인학습	26	2.69	0.43	0.08		
	독서·신문열람	10	2.88	0.32	0.10		
	문화강좌 참여	44	3.14	0.39	0.05		
	정보검색	6	2.16	0.60	0.24		
	친목도모·기타	27	3.13	0.45	0.08		
심리적·정서적 장벽	대출·반납	24	2.88	0.61	0.12	11.062	0.000
	개인학습	26	2.77	0.51	0.10		
	독서·신문열람	10	3.07	0.53	0.17		
	문화강좌 참여	44	3.40	0.54	0.08		
	정보검색	6	1.96	0.74	0.30		
	친목도모·기타	27	3.39	0.61	0.12		
직원으로 인한 장벽	대출·반납	24	2.67	0.69	0.14	4.192	0.001
	개인학습	26	2.60	0.66	0.13		
	독서·신문열람	10	2.87	0.76	0.24		
	문화강좌 참여	44	3.10	0.63	0.10		
	정보검색	6	2.11	0.81	0.33		
	친목도모·기타	27	3.00	0.58	0.11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대출·반납	24	2.80	0.62	0.13	11.446	0.000
	개인학습	26	2.72	0.49	0.13		
	독서·신문열람	10	2.96	0.62	0.15		
	문화강좌 참여	44	3.62	0.50	0.09		
	정보검색	6	2.83	0.63	0.10		
	친목도모·기타	27	3.50	0.72	0.12		

〈표 9〉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매일	7	2.51	0.28	0.10	3.680	0.006
	1주 1회 이상	30	2.75	0.48	0.08		
	한 달 1회 이상	39	2.90	0.59	0.09		
	6개월 1회 이상	21	2.89	0.51	0.11		
	1년 1회	40	3.12	0.38	0.06		
물리적·환경적 장벽	매일	7	2.48	0.22	0.08	3.504	0.009
	1주 1회 이상	30	2.37	0.61	0.11		
	한 달 1회 이상	39	2.49	0.61	0.10		
	6개월 1회 이상	21	2.52	0.49	0.11		
	1년 1회	40	2.83	0.50	0.08		
직원으로 인한 장벽	매일	7	2.55	0.88	0.33	2.557	0.042
	1주 1회 이상	30	2.62	0.69	0.13		
	한 달 1회 이상	39	2.83	0.78	0.13		
	6개월 1회 이상	21	2.83	0.56	0.12		
	1년 1회	40	3.10	0.56	0.09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매일	7	2.29	0.43	0.16	4.932	0.001
	1주 1회 이상	30	3.05	0.69	0.13		
	한 달 1회 이상	39	3.26	0.78	0.13		
	6개월 1회 이상	21	3.14	0.84	0.18		
	1년 1회	40	3.45	0.48	0.08		

가지 요인들(물리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도서관 불안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1년에 1회 정도인 이주여성들이 세 가지 요인에서 도서관 불안 점수가 높았다. 도서관 방문을 자주하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점수가 비교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체 도서관 불안과 3개 영역에 대한 차이를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 방문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불안감이 감소되는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도서관을 1년에 1회 정도 방문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특히 직원에 의한 요소, 디지털정보 이용 요소에서는 매일 이용하는 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8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집과 도서관까지 거리와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보 30분 이내, 버스로 30분 이내, 버스 30분 이상 1시간 이내, 버스 1시간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설문결과 집과 도서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 이내인 여성이 세 가지 요인들(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모두 높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과는 <표 10>과 같다.

추가적으로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표 10> 집과 도서관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도보30분	34	2.71	0.53	0.09	6.695	0.000
	버스30분	47	2.75	0.45	0.06		
	버스 1시간 이내	46	3.20	0.42	0.06		
	버스 1시간 이상	10	3.05	0.54	0.14		
심리적·정서적 장벽	도보30분	34	2.79	0.66	0.11	6.562	0.000
	버스30분	47	3.03	0.60	0.09		
	버스 1시간 이내	46	3.41	0.58	0.08		
	버스 1시간 이상	10	3.06	0.84	0.26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보30분	34	2.64	0.79	0.14	12.295	0.000
	버스30분	47	2.55	0.59	0.09		
	버스 1시간 이내	46	3.26	0.51	0.07		
	버스 1시간 이상	10	3.07	0.53	0.17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도보30분	34	2.91	0.67	0.11	9.578	0.000
	버스30분	47	2.98	0.76	0.11		
	버스 1시간 이내	46	3.57	0.55	0.08		
	버스 1시간 이상	10	3.56	0.58	0.18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과 도서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 이내와 버스로 1시간 이상인 여성들의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높으며, 도보 30분 이내를 포함하여 버스로 30분 이내인 거리는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심리적 불안, 직원으로 인한 불안, 디지털정보 이용에 의한 불안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9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장덕현(2005)은 소외계층의 정보요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보다는 살아왔던 개인사가 정보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이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모국에서의 도

서관 이용경험에 관련하여 매일,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이용경험 없음의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6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요인들(심리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물리적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들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점수가 높았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에 대해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별 분석해 본 결과,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여성의 집단 모두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미만 방문한 집단 또한 도서관 불안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따라서 모국에서 도서관을 이용해 보지 않은 여성들 보다 모국에서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한 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보다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매일	4	2.78	0.22	0.11	7.281	0.000
	1주 1회 이상	12	2.59	0.44	0.12		
	한 달 1회 이상	22	2.54	0.59	0.12		
	6개월 1회 이상	14	2.95	0.43	0.11		
	1년 1회	28	2.88	0.52	0.09		
	경험 없음	57	2.91	0.39	0.05		
심리적·정서적 장벽	매일	4	2.73	0.06	0.03	6.246	0.000
	1주 1회 이상	12	2.69	0.64	0.19		
	한 달 1회 이상	22	2.70	0.74	0.16		
	6개월 1회 이상	14	3.22	0.52	0.14		
	1년 1회	28	2.98	0.73	0.14		
	경험 없음	57	3.39	0.52	0.07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매일	4	2.92	0.35	0.17	3.495	0.005
	1주 1회 이상	12	2.67	0.57	0.16		
	한 달 1회 이상	22	2.40	0.77	0.17		
	6개월 1회 이상	14	2.88	0.85	0.23		
	1년 1회	28	2.80	0.72	0.14		
	경험 없음	57	3.07	0.56	0.07		
물리적·환경적 장벽	매일	4	2.58	0.57	0.29	2.603	0.028
	1주 1회 이상	12	2.29	0.56	0.16		
	한 달 1회 이상	22	2.30	0.72	0.15		
	6개월 1회 이상	14	2.64	0.45	0.12		
	1년 1회	28	2.53	0.61	0.12		
	경험 없음	57	2.73	0.46	0.06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매일	4	2.85	0.30	0.15	5.139	0.000
	1주 1회 이상	12	2.67	0.36	0.10		
	한 달 1회 이상	22	2.85	0.77	0.16		
	6개월 1회 이상	14	3.03	0.60	0.16		
	1년 1회	28	3.29	0.69	0.13		
	경험 없음	57	3.47	0.70	0.09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91점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과 '심리적·정서적 장벽'의 불안점수가 각각 3.20점과 3.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환경적 장벽'과 '기계이용 장벽'은 2.57점, 2.49점으로 보다 낮은 도서관 불안 점수로 측정되었다.

개인특성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횟수, 도서관거리, 그리고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특

성별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상'일수록 도서관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심리적 요소에서 한국어 능력이 '하'인 이주여성의 불안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여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 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과 아주 비례하여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직업이 농·임·어업, 무직, 공장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은 이주여성

들의 도서관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 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문화강좌와 친목도모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료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자료실에 대한 지식이 다소 약하고, 직원과의 만남의 적다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영역에서 도서관을 1년에 1회 정도 오는 여성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원과 디지털정보 요소에서 도서관을 매일 이용한 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도서관 직원 및 환경과 장비에 점점 익숙해져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과 도서관 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과 도서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 이내인 여성이 세 가지 요인들(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모두 높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즉,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심리적 장벽, 직원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영역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이 먼 이주여성들에 대한 도서관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여성의 집단 모두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모국에서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한 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보다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전체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도록 하여 도서관 시설과 환경, 자료이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며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에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낮은 불안감을 보였고 도서관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도서관에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다문화 자녀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센터 등과 같은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은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집안의 생계 때문에 일을 나가거나 도서관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여성이 많다. 그러므로 도서관 방문과 이용에 많은 장애요소를 가진 이주여성에게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센터, 결혼이주센터,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상주해 있는 공단지역 혹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불

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서 도서관 이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교육은 제한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용의 폭이 좁은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더욱 다양한 도서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부담과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도서관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구결과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한국어 소통에 능숙할수록 도서관 불안 점수가 낮았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도서관 직원과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더욱 결여될 것이다. 그러므로 직원에 의한 불

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포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한 직원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보이용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광주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국내 모든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요인의 적용과 더 많은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나현 (2004).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http://dx.doi.org/10.4275/kslis.2004.38.2.029>
- 김영미, 조인숙 (2009).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47-64.
- 김이선 (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 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67-192.
- 김홍렬 (2010).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461-478.
-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13-332.
-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 방향 모색: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27.
- 박주범 (2010).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양수연, 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1.311>
- 오선혜, 이성숙 (201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57-27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2.23.1.257>
- 오의경 (2012).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199-217.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199>
- 오해연,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주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25-14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125>
- 이란주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183-195.
- 이연옥, 장덕현 (2013).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57-384.
- 이상노 (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이혜원 (2015).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37-366. <http://dx.doi.org/10.16981/kliss.46.2.201506.337>
-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09-327.
-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 (2014).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45-367.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345>
- 정종기 (2014).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이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271-296.
- 조용원,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1.135>
-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D.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 Jiao, Q. G., Onwuegbuzie, A. J., & Lichtenstein, A. A. (1996).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2), 151-163. [http://dx.doi.org/10.1016/s0740-8188\(96\)90017-1](http://dx.doi.org/10.1016/s0740-8188(96)90017-1)

- Kuhlthau, C. C. (1983). The library research process: Case studies and intervention with high school seniors in advanced placement English classes using Kelly's theory of constructs. Ph.D.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Rutgers.
- Kuhlthau, C. C. (1988). Developing a model of the library search process: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RQ*, 28(2), 232-242.
-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7(2), 160-165. http://dx.doi.org/10.5860/crl_47_02_160
- Onwuegbuzie, A. J. (1997). Writing a research proposal: The role of library anxiety, statistics anxiety, and composition anxie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1), 5-33. [http://dx.doi.org/10.1016/s0740-8188\(97\)90003-7](http://dx.doi.org/10.1016/s0740-8188(97)90003-7)
- Van Kampen, D. J. (2002).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Woo-Kwon, Park, Seong-Woo, & Yeo, Jin-Won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45-367.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345>
- Cho, Yong-Wan, & Lee, Soo-Sang (2011).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69-297.
- Han, Yoon-Ok, Cho, Mi-Ah, & Kim, Soo-Kyoung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1.135>
- Jang, Bo-Seong, Kim, Eun-Jeong, & Nam, Young-Joon (2010). Measurement and analysis of library anxiety among library handicapped user.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309-327.
- Jung, Jong-Kee (2014). A study on the impact of library exposure experience to freshmen's academic library anxiet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71-296.
- Kim, Hong-Ryul (2010).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461-478.
- Kim, Yi-Seon (2010). Multicultural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s approach

- on cultural agenda. *Social Science Studies*, 34(1), 167-192.
- Kim, Young-Me, & Cho, In-Sook (2009). A study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through the public library homep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3), 47-64.
- Kwon, Na-Hyun (2004). Library anxiety and library anxiety scale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9-47.
<http://dx.doi.org/10.4275/kslis.2004.38.2.029>
- Lee, Hye-Won (2015).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lanning and modell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337-366.
<http://dx.doi.org/10.16981/kliss.46.2.201506.337>
- Lee, Lan-Ju (2002).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3(2), 183-195.
- Lee, Sang-No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daptation in living in Korea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 Lee, Yeon-Ok, & Chang, Durk-Hyun (2013).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357-384.
- Nam, Tae-Woo, & Park, Hyun-Young (2006).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151-168.
- Nam, Young-Joon, Kim, Gyu-Hwan, & Choi, Sung-Eun (2010). A research on library anxiet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CAU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13-332.
- Oh, Eui-Kyung (2012). A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ibrary anxiety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199-217.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199>
- Oh, Hae-Yeon, & Kim, Gi-Yeong (2014).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125-14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125>
- Oh, Sun-Hye, & Lee, Seoung-Suk (2012).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and relief strategies for senior user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57-27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2.23.1.257>
- Park, Joo-Bum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hw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Yang, Soo-Youn, & Cha, Mi-Kyeong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311-332.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1.311>

